**마0528 Note**

**◆ ​Cross check : 삼상1607, 히0412  
​**

삼상1607.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니라, 그의 겉모양(생김새)이나 그의 신장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물리쳤음이라. 이는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음이라. 이는 사람은 겉의 모습을 바라보나, 여호와는 마음(레바브: 마음,중심,용기,명철)을 바라봄이라.

히0412.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세력이 있으며, 양 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심지어 따로(두 동강이로) 나누기까지, 또 관절들과 골수를 따로(두 동강이로) 나누기까지 꿰뚫어 보며(간파하며),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는 자이심이라.

**이정표 : 생각을 바꾸라**

약0114. 대신에 낱낱의 자는,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의해 이끌려지고 유인되는 때에 시험 받느니라.

약0115. 다음에 정욕이 임신했을 때에(충분히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죄(빗나감)를 낳느니라, 그리고 죄는 그것이 완성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씨 : 욕심, 생각

생각의 여하에 따라 큰 결과를 초래한다. (생각-감정-행동초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생각이 미래와 인격을 만든다.

엡0614. 그러므로, 너희 허리들을 진실함(성실함, 충실함/ 알레데이아: 진리, 참되다, 진실성, 사실)으로써 두르며, '법적 깨끗함 (디카이오쉬네: 공정公正,정의,칭의,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그리고 너희의 발들을 평화(강화, 에이레네: 평화, 번영, 평강, 하나가 됨, 고요, 안식)의 복음의 준비(헤토이마씨아:준비,예비)로써 신을 신기우고, 무엇보다도, 그것으로써 너희가 사악한 자들의 온갖 불창들을 끌 수 있을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서 있으라.

마귀가 쏘는 불화살, 불을 지피는 것을 즉시로 끄라(생각을 멈추라),

그것을 묵상하고 즐길 때,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지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죄의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빌0408. 끝으로 형제들아, 참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정직한(쎔노스:존경,공경할 만한, 장중한,정직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적법한(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순수한(불순물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프로스필레스: 친절한,기쁘게 하는,사랑스러운,정다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좋은 소식에 속하는(유페모스:칭찬하는,칭찬할 만한,좋은소식의) 무엇이든지, 만일 어떤 미덕(아레테:남자다움,용맹,탁월함,칭찬,미덕,도덕적 선양)이 있으면, 또 만일 어떤 칭송(에파이노스:칭송,찬양,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숙고하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생각은 의지에 의해 바뀐다.

사5507. 사악한 자로 그의 길을, 법적으로 불결한 자로 그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라, 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라함:귀여워 하다,사랑하다,측은히 여기다,자비를 입다,자비를 베풀다,불쌍히 여기다)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는 그분께서 풍성하게 사면하실 것임이라.

죄와 음란과 거짓과 싸우지 말고, 그 씨인 그 생각과 싸우라, 초전에 박살내라.